

#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김용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백영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조교수

**김예란\*\*\*\*\***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유정\*\*\*\*\***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이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천이론이 되는 소통행위(communicative action)이론들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소통 간의 관계가 공동체미디어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커뮤니티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 참가자들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소통행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공동체미디어 참가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소통행위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미디어의 조직화 과정을 지역공동체의 공론장 구조의 재구성 맥락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인터뷰와 각종 문서자료의 질적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도시공동체운동은 노스텔지어적인 감정적 실천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규정하고 소통행위의 실천 근거를 찾고

---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6058).

\*\* chaeyounggil@gmail.com, 주저자/교신저자.

\*\*\* yongckim@yonsei.ac.kr, 제 2저자.

\*\*\*\* ymbaek@gmail.com, 제 3저자.

\*\*\*\*\* yeran@kw.ac.kr, 제 4저자.

\*\*\*\*\* eujung.kim@gmail.com, 제 5저자.

있었으며, 공동체미디어는 소통행위의 동기와 소통방식에 따라 주민마을미디어, 시민마을미디어, 마을언론미디어, 관변마을미디어 등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공동체 공론장 역시 소통 동기와 방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소통행위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핵심어 : 커뮤니티미디어, 공동체미디어, 마을공동체, 도시공동체,  
공동체 공론장**

## 1. 서론

한국에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sup>1)</sup>는 언제나 기획공간의(project space) 성격을 지닌다. 목적, 주체,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마을은 늘 국가 또는 사회 일반의 개조를 위한 하부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1960년대 마을은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재개조의 대상이었으며 공동체 구성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집합적 대리인으로 인식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와 더불어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공동체가 마을의 기획주체로 등장한다. 지역사회는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사회적 공동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과 ‘마을’은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풀뿌리 시민사회의 토대가 되기 시작했다(조명래, 2013).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마을공동체에서는 지방자치정부, 시민 및 노동 단체, 그리고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치라는 방식의 공간기획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유창복, 2014). 최근의 마을공동체 ‘운동’ 역시 기획공간으로서의 마을이라는 전통적 경향성은 여전히 보이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전의 변화 주체와 방식 그리고 목적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 운동은 참여민주주의의 전통과 가치를 옹호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정서적 연대와 상호부조적 사회 및 경제 공동체라는 대안적 공동체 발전 모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대안적 공동체 발전 모델은 시장자유주의(Polanyi, 2009)와 엘리트민주주의(Berrigan, 1979; Lewis, 1984)를 극복하고자 산업혁명 이래로 지속적으로 실천된 것이지만, 국가 주도 개발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참여적이며 자발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공공적 발전 모델로 논의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1) 이 논문의 저자들은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집합적 거주공간을 공유하는 실체를 지닌 동네 또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마을커뮤니티 또는 마을공동체는 마을이나 동네에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하고자 하는 집합적 관계들을 의미한다.

마을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기획공간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커뮤니케이션학의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적 실용주의 철학과 진화론적 사회발전이론, 그리고 대중적 커뮤니케이션학에 뿌리를 두는 커뮤니케이션학은 소통과 미디어를 자유민주주의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필요조건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동체 내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Rogers, 1997). 특히, 이러한 실천적 전통은 오늘날 공동체 삶의 조건 개선이 구성원의 소통환경 및 관계의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소통행위이론으로 지칭할 수 있는 일련의 논의들에서 잘 나타난다(Friedland, 2001; Friedland & McLeod, 1999; Garrett et al., 2013; Kim & Ball-Rokeach, 2006; Wilkin, Moran, Ball-Rokeach, Gonzalez, & Kim, 2010). 소통을 통한 공동체 강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소통강화이론으로 지칭할 수 있는 이러한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들에 기초한다. 첫째, 마을공동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둘째, 민주주의 체제에 기여하는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 및 단체의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고 셋째, 이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다양한 참여자 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주관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통강화이론들은 하버마스적 이상적 공론장 소통의 구조와 방식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현실화함으로써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윤리적 실천의식을 전제한다.

커뮤니티미디어(이하 공동체미디어)이론들 역시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전제들을 공유한다. 커뮤니티미디어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자율적 커뮤니티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참여민주주의를 고양하고자 한다(Carpentier & Servaes, 2001; Downing, 2000; Meadows, Forde, Ewart, & Foxwell, 2005; Rodriguez, 2011; Thompson, 1995; 채영길, 2015). 이 이론들 역시 공동체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소통행위 이론 및 실천 프로그램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소통강화이론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소통강화이론들에서 커뮤니티미디어는 공동체 소통구조의 중요한 하부구조 중 하나로 인식된다.

로버트 크랙(Robert Craig, 1999, 2007)에 의하면 소통이론들은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나 개인 수준의 의식이나 행동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소통이론들은 구성적 소통 모델(constitutive communicative model)로 수렴되며 소통강화이론과 공동체미디어이론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두 이론들 모두 커뮤니티 차원에서 하버마스적인 이상적 공동체 공론장과 이를 위한 소통 관계와 구조를 구축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민주적이고 상호부조적인 커뮤니티의 삶의 구축을 위하여 해당 커뮤니티의 소통구조와 미디어를 새롭게 조직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통강화이론과 공동체미디어이론들은 마을 단위 공동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장의 구성을 통해 참여적 민주주의와 상호부조적이며 자율적인 커뮤니티 발전이라는 대안적 공동체를 모색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운동 역시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소속감, 연대의식, 그리고 상호이해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정확히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마을미디어는 공동체의 소통자원으로서 공동체 공론장을 조직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3, 2015). 따라서 이 연구는 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중심으로 마을 활동가들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과 공동체운동의 소통행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통행위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공론장이 어떻게 변화(또는 고정, 유지)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의 서울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갖는 대안성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공동체와 소통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말 그대로 삶의 방식이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사실상 공동체의 과정 — 공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리하여 공동의 활동과 목적을 지니며, 새로운 수단의 제시와 수용과 비교를 통해 성장과 변화의 긴장과 성취를 이루는 일 — 이다(Williams, 2007, p. 79).

윌리엄스는 공동체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공동체 형성과정과 커뮤니케이션과정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순환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소통과정과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소통방식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견인하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변화는 소통방식의 조건을 견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이 완전한 단절적 환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공동체 역시 불변의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소통적 정의는 커뮤니티를 고정된 생활공간으로 묘사하거나 상호 이해와 협동이 충만한 이상적 가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피상적”이며 “허구”(Williams, 2013, p. 117) 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공동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늘 존재하는 주민들 공동의 삶의 공간이지만,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 및 변화 방식은 늘 변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공동체 내 소통 구조와 방식 또한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 근대화 전후의 공동체나 새마을운동 시기의 공동체, 민주화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동체들은 분명히 모두 개별적 특성을 지닌 공동체들이며 각각 특정 방식의 지배적 가치와 소통 주체 및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소통강화이론들 — 소통구조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 역시 이러한 공동체의 가변성

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소통강화이론들의 핵심 전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공동체는 필수적이며 공동체의 민주적 소통관계는 이를 가능하게 하고, 역으로 민주적 공동체는 민주적 소통구조를 지속 및 확장시킨다는 데 있다(Friedland, 2001; Friedland & McLeod, 1999; Garrett et al., 2013; Kim & Ball-Rokeach, 2006; Wilkin, Moran, Ball-Rokeach, Gonzalez, & Kim, 2010).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소통구조와 관계의 긴밀성과 그러한 관계의 재구성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전통적인 학제적 신념 중 하나이기도 하다(Rogers, 1997).

이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사회는 참여하는 공중과 이들의 삶의 터전인 공동체를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한다. 이때의 공동체는 당연히 민주적 특성을 내재해야 하며 민주사회는 그러한 공동체의 확장된 정치사회적 공간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민주주의의 지향성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목도한 미국의 시민사회적 공동체이며 존 듀이(John Dewey)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생활양식으로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tic) 전통 속에서 시민사회적 공동체, 민주주의 생활양식으로서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씨줄과 날줄로 얽힌 다양한 차원과 방식의 소통관계들이다.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소통적 토대는 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다양한 미디어와 풀뿌리 및 시민사회 단체, 기관, 조직 및 이들 간의 연결망(network)이라는 '섬유구조'(fabric)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적 소통관계의 섬유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등 사적 관계들 역시 이러한 소통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개인적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들과 같은 공공적 주체들 간의 관계밀도와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공동체 소통구조 또는 생태계가 더욱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유연한 구조로 구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망은 단순히 상징적 소통 관계와 공간으로 머무

르지 않는다. 개인과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슈와 담론을 공동체로 확장하고 공공적 이슈와 담론으로 전환되게 하며, 공동체의 보건, 행정, 복지, 경제 등 실질적이며 물질적인 관계의 재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Minkler, 2005; Wilkin, 2013).

이와 더불어 소통강화이론들에 의하면, 소통적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별적 개인들의 주체성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내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 기억, 기능 등은 각자의 스토리가 되며, 이 스토리들의 교환은 공적 이슈를 만들뿐 아니라 소속감(belongingness)이나 연대감(solidarity)과 같은 심리적 유대의 강화나 공동체의 (심리적) 경계(boundary)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개인적 수준의 인지적 변화는 결국 윌리엄스가 지적하듯 “공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리하여 공동의 활동과 목적”을 발생하게 하면서 주체와 범위가 확장된 (질적·양적) 공동체가 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소통강화이론은 기존의 사회적 공동체에서 커뮤니케이션적 공동체로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주체들 간의 상징적이며 서사적인 관계 맺음, 연결, 확장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내 개별 주체의 공동체적 인지의 변화, 집단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그리고 지리적·문화적 공동체 범위의 재구성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적이며 민주적인 공동체와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윤리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2) 공동체 공론장

커뮤니티의 소통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적 실천을 통한 공동체 공간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하버마스의 소통행위(communicative action)와 이를 통한 생활세계의 복원이라는 이념적 틀을 공유한다. 실제로 프리드랜드(Friedland, 2001)는 하버마스적 공론장 민주주의 — 참여와 속의에 기반을 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 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



체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p. 359).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공동체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life world) 개념에 가까운데 이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자신과 다른 주체에 대한 지식을 공동체의 언어로 교환하고 이를 이해하며 공동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적 관계를 구축한다. 이상적 공동체는 생활세계와 유사하게 상호주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참여적이고 개방적이며 숙의적인 소통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는 자본과 권력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오로지 원초적 공동체의 통합과 연대의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매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생활세계의 소통행위는 근현대 도시공동체에서 자본과 권력의 지속적인 도전을 받으며 체계(system world) 공간의 질서, 즉, 기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에 — 예를 들면, 도시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 통제된다. 체계적 커뮤니티에서는 공동체 주민이 배제되고, 엘리트 집단, 관료, 대중매체와 같은 권력 주체들이 그들의 언어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 체계공간에서의 소통행위는 변화의 과정이라기보다 지배와 통제의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하부구조가 아닌 시스템의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 공론장은 일반 사회의 시스템 하부구조로서의 공동체에 저항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상호주관적 소통행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대안적 실천공간이 된다. 따라서 소통강화이론에서 공동체는 체계와 생활세계로 구분되는 두 개의 대립적 공간으로 상정되며 각 세계는 고유한 방식의 소통행위들로 구성되고, 공동체 공론장은 후자, 즉, 생활세계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징적이며 관계적인 공간으로 이해됨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공동체 공론장은 소통강화이론의 연장선에 위치하며, 공동체의 공론장은 민주적 생활세계의 복원을 위한 숙의적 소통행위가 조직화되는 공동체 내 모든 주체와 이들 간 관계들의 이상적 실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3) 공동체미디어

공동체미디어는 소통강화이론과 다른 영역 — 주로 대안미디어 영역 — 에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동체 소통행위를 통하여 공동체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Carpentier & Servaes, 2001; Downing, 2000; Meadows, Forde, Ewart, & Foxwell, 2005; Rodriguez, 2011; Thompson, 1995). 공동체미디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참여적 민주주의에 헌신하고자 하며 또한 커뮤니티 관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의 연대를 진작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는 미디어”로 규정된다(Howley, 2005, p. 2). 개념에서도 나타나듯이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 소통행위를 토대로 참여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소통강화이론과 유사한 윤리적 목적과 방식을 공유한다. 실제로 소통강화이론에서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소통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공동체미디어의 스토리텔러(storyteller)로서의 역할 등에 주요 관심을 둔다.

하지만 공동체미디어이론들과 사례연구들은 이 미디어가 단순히 공동체 소통구조의 하부요소를 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소통구조와 소통행위를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 내 새로운 실천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동체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포드 등(Forde et al., 2005)은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가 청취자와 생산자의 관계망에 의해 구축되는 참여자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주류체계에서 소외된 원주민들의 광범위한 대안적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의 제작과 행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을 발견하고 조직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이전과 다른 공동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류 미디어와 달리 공동체미디어는 소통행위를 통해 대안적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공동체 내에 조직한다는 점에서 관계를 직접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례들은 공동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비롯한 자본과 권력의 체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급진적 미디어(Downing, 2000)의 성격을 지니기도 함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의 시골 라디오 공동체미디어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양 진영 모두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주민들의 평화적 정치투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조직되었다(Rodriguez, 2011). 갈등과 투쟁 및 협상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이전과 달리 공동체를 권력투쟁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연대의식을 고양하며 제 3의 정치적 실천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는 하버마스적인 이성적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소통행위와 공동체가 아닌 투쟁과 갈등 과정에서 시민<sup>2)</sup>에 의해 생취되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동체미디어에는 권력에 민감한 급진적 공동체의 가능성 역시 존재함을 보여 준다.

또한, 공동체미디어는 참여주체와 소통행위의 목적보다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의 윤리적 소통행위와 방식을 더욱 중요시한다. 크리스 애튼(Chris Atton, 2002)은 공동체미디어와 같은 대안미디어의 가장 큰 특성은 생산과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미디어콘텐츠 이용자 사이의 경계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미디어의 내용과 조직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 공론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제작과 운영구조와 소통방식이 위계적이며 선별적이고 통제적이라면 공동체미디어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미디어 이론과 연구들은 미디어가 재구성하는 공동체 내 다양한 공론장의 특성만큼이나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구조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통강화이론과 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와 공동체의 소통 구조 및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며 이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

---

2) 이 글에서 공동체의 특성상 공동체의 구성원은 주민으로 통칭된다. 다만, 여기서는 공동체미디어와 관련하여 공동체 공론장의 조직화와 실천이라는 소통행위의 주체, 즉, 정치적 주체라는 의미에서 시민으로 지칭한다.

는 공동체의 특성 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최근 증가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학에서의 공동체미디어 연구는 수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연구 분야 역시 정책 연구(김은규·최성은, 2013) 또는 특정 공동체의 권력화 가능성과 같은 공동체미디어의 역할에 한정되었다(안진·채영길, 2015).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 내 소통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소통행위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의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인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중심으로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이 소통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통행위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공론장이 어떻게 변화(또는 반대로 고정, 유지)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통강화이론과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재구성하고자 하는 공동체란 어떠한 것이며 이를 위해 추구하는 소통행위의 방식과 내용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1) 공동체미디어 참가자들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소통행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 (2) 공동체미디어 참가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소통행위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 (3) 공동체미디어가 공동체 공론장의 형성, 유지, 또는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며 그 과정의 특성은 어떠한가?

## 2) 사례선정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공동체 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며 공동체미디어인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마을미디어지원센터라는 민간협력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26개가 활동하고 있으며(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더 많은 공동체가 준비모임을 통해 공동체미디어를 조직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를 “이윤과 경쟁”이 아닌 “관계를 중심으로 공통의 문제를 상호연대와 상호부조로 해결하고, 그것이 더욱 지역적 기반으로 이뤄지는 곳”(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3)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sup>3)</sup>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통 활성화, 문화형성, 마을과 주민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한다(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2016). 이러한 서울시의 공동체와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개념과 목적 등은 이 연구의 이론적 논의의 주요 관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연구사례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공동체 미디어 중에서 미디어를 제작하고 공동체 교육 및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10개 미디어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연구수행 당시 전체 20개 마을미디어의 50%에 해당한다(〈표 1〉 참조). 선정 기준으로는 매체

---

3)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미디어의 차이는 마을공동체의 경우 마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과 모임 그리고 이들의 조직적 실천을 부각하는 것인 반면 공동체미디어는 보다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들의 미디어와 공동체 미디어는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미디어라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동일하게 사용했다.

표 1. 연구대상 공동체미디어와 인터뷰 대상자

ID	지역	미디어	매체	인터뷰 참여자수	활동
A	서울	-	-	1	서울시 관련 공무원
B	은평구	은평시민신문	신문/인터넷신문	1	공동체 활동가
C	구로구	구로FM	인터넷 라디오	1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D	관악구	관악FM	저출력 라디오	1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E	용산구	용산 마을협동조합신문	신문	1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F	동대문구	창신동 덩	인터넷 라디오	1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G	성북구	와보송TV	인터넷 라디오/TV	2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H	성동구	빅피쳐	인터넷 라디오	3	공동체 활동가
I	도봉구	도봉N	인터넷 라디오/TV	3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J	구로구	구로타임즈	신문	1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K	금천구	금천IN	신문	1	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와 지역, 콘텐츠 제작 및 마을공동체 활동의 다양성과 적극성 등을 고려하였다. 실제 연구대상 미디어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디어 제작과 공동체 활동 및 다른 공동체미디어와의 연계 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마을미디어의 절반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사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자료수집

이 연구는 인터뷰와 관련 내·외부 보고서 등의 문건 등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인터뷰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공동체미디어 사무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 공간, 마을공동체 운영 카페 등 연구대상이 소속된 공동체 내 공간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시간은 미디어별 및 참여자 수에 따라 2~4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사전 허락하에 모든 인터뷰를 디지털 음성녹음기로 녹음

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 대상 미디어는 모두 10개였으나 (〈표 1〉 참조) 실제 인터뷰는 모두 16명으로 이는 와보송 TV(2), 빅피쳐(3), 도봉N(3) 등 3개 미디어에서 복수의 활동가가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는 아니지만 관련 정책과 지원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로 인터뷰 대상자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A는 서울시의 공동체미디어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인식과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터뷰에 포함하였다.

인터뷰 프로토콜은 해당 미디어의 기본 현황을 질의하는 질문을 비롯하여 미션/목표/주요활동, 조직/운영, 재원 및 의사결정, 내·외부 관련 협력 환경, 공동체 활성화 모임/단체의 역할,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의 주제로 모두 53개 질의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질의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연구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였기에 구조화된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뷰의 특성상 인터뷰 프로토콜을 벗어난 추가질문이나 새로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책임연구자, 보조연구자, 녹취자 등 최소 3명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모든 연구에서 이것이 반영되었고, 일부 인터뷰의 경우 최대 6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 분석을 위한 주 자료인 인터뷰 녹취록 외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배경 및 목적, 방식과 연구대상 미디어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2차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각종 현황 및 보고서와 매체가 발간한 각종 미디어와 팸플릿, 홈페이지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분석방법

이 연구는 질적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질적 분석방법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공간, 텍스트, 조형물, 관계, 공동체 또는

역사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Lindlof, 2001, p. 78). 이 연구는 기존 이론의 정교화나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 이론적 전제들이 제기하는 주요 개념 및 개념 간의 관계가 실제 현장에서 행위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가 도출(emergence)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질적 분석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이론적 개념과 연구문제들에 제기되는 핵심 주제(공동체의 개념, 소통행위의 의미, 소통구조, 공동체 공론장의 특성과 역할)들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각 인터뷰에서 추출하여(1차 코딩) 이를 매체별, 주제별로 분류(2차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분석 주제와 개념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재개념화 및 유형화하는 작업(3차 코딩)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이한 공동체미디어의 인터뷰들과 문서에 나타나는 텍스트들을 교차 검증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려 하였다. 기초자료-분류자료-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은 공동체가 사회 일반 및 공동체 구성원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 4. 분석

### 1) 공동체의 의미와 소통

참여자들은 마을커뮤니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고 민감한 과정이지만 인터뷰 분석결과는 마을을 행정 및 지리에 의해 구획된 인위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공동체,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친밀한 ‘이웃공동체’로 규정함을 보여 준다.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고민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지 않는 구조를 고민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 집단”(D).

“결국은 사람이죠.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동네 하나를 보면 동네 분들의 어떤 그 융합이 잘되는 뭐 그게 결국 마을”(G).

“동(洞)은 지역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말이라고 한다면 마을은 관계더라고요, 특별한 용건 없이도 다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뭔가 일어나게 하는 것”(I).

공동체 참여자들이 정서적 관계로서의 공동체로 마을커뮤니티를 개념화하는 방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담당관인 A씨의 도시공동체에 대한 개념화वाद도 유사하였는데, 이는 마을공동체 참여자와 관리자 사이에 적어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 공동체 사업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주민, 공동체에 포함되면서 마을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마을의 범위를 관계성과 공간성이 같이 겸한 그런 것”(A).

공동체 사업 참여자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공동체에 대한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사업을 감독하는 지원기관에 의한 획일적 사업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은 예산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구속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업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 지원기관이 규정하는 마을에 대한 개념과 사업의 일반적 의미는 마을미디어 선정과정에서 주민

들과 공유되고 이들의 사업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또한, 사업 지원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나 워크숍 등 집단적 교육 프로그램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동조화 현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업 지원기관과 참여단체가 공유하는 마을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방식에는 그다지 새롭다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대중적이며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가치와 개념보다 관계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는 거의 모든 공동체 관련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개념화가 함축하는 실천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관계’와 공간의 ‘공유’는 오늘날 도시공동체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며 다분히 목적지향적 정의라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공간과 관계의 공유 공동체라는 개념화는 “같이 밥도 먹는다”, “융합이 잘된다” 상호호혜와 소속감이 존재하는 자급자족적인 전통적 마을로서 마을공동체라는 이상적 공간을 현실로 소환하려는 집단적 의지로 보인다.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좋지 뭐. 경쟁을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게 좋은가? 라든지, 야, 강남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 여기서 조그만 더하면 그래도 사는 동안 행복해, 이런 정서들 ...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 건물 짓거나 돈 들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와 관계망으로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온 거잖아요”(B).

“관심과 참여”의 공동체에 대한 욕구의 반영으로서 공동체를 정의하는 이러한 방식은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서 이러한 공동체 욕구를 표명할 때 다분히 회상적인 추

역에 근거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과거의 내 기억 속 공동체를 오늘에 되살리고 싶은 욕망으로 읽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B씨가 회고하듯이 과거의 도시공동체를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와 관계망”으로 구성되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우리 동네”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회상은 추상적이며 실재하지 않았던 상상의 공동체를 서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해방 이후 도시공동체는 오히려 그 반대로 “건물(을) 짓거나 돈을 들여서 해결”하는 ‘체계’(system world)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미화된 과거의 공동체를 회상하고 미래의 공동체를 또다시 상상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공간과 관계의 공유 공동체로서 마을은 이들이 새로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공동체라는 실천적 목적으로서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 즉,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의 개념화는 감정적이며 추상적인 회상에 기반을 둔 미래의 공동체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실천적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감정적 실천

마을공동체를 규정하는 참여자들의 태도는 구체적 사실들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 느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제 나이 이상이면 마을에 대해서 다 상이 있어, 내가 살던 마을이 있어 가지고”(A).

“옛날에 서로 돕고… 재능기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런 거라는 일상을 살았는데”(B).

“OO동이다 OO동이다 이름이 아니고, 느낌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으로서 향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E).

마을에 대한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개인적 경험 또는 경험이라고 믿는 ‘기억들’은 마을에 대한 특징적인 감정적 경향을 만들어 내며, 이는 마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미래의 마을을 기획하게 한다. 따라서 참여자 개개인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느낌과 감정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한 것이지만 역동적 실천의 기반을 제공하며 마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마을에 대한 과거의 느낌이 한편으로는 모순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실재하기 보다는 노스텔지어적인 선택적 기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이 묘사하는 과거 마을의 시기(1970~1980년대)는 마을공동체가 와해되고 파편화되는 한국의 초고속 근대화 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 역시 도시 마을공동체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가 서로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근대가 가지고 있는, 혹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병폐들이랄까 문제점이랄까 흔한 것들이 훼손된 형태가 마을이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모습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H).

“서울 지역은, 제가 느껴 본 게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 보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OO에 산다고 얘기하기를 굉장히 기피하거나 꺼리는 거예요. 왜? 타 지역 사람들은 OO에 산다고 그러면 OO공단. 이게 이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OO공단, 빈곤, 낙후, 공동이, 공순이. 이게 몇 년도 얘기에요. 70, 80년대 OO공단이 여기를 완전히 여기의 중심축이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J).

사라진 과거의 이상적 마을공동체를 오늘, 현재에 이상적 공간과 관계의 공유 공동체로 회상한다는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기억은 ‘가공된 기억’이다. 그리고 이는 커뮤니티를 “기억으로 기능하는 신화”로 파악하는 것이며 “피상적 비교”에 머무르는 것이기도 하다(Williams, 2013, p. 117). 또한,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서 재가공되는 기억은 노스텔지어적 기억의 두드러진 특성이기도 하다. 타녹(Tannock, 1995)에 의하면, 노스텔지어적 기억은 단절되고 상실한 무엇인가를 복원하고 지속시키려는 시기에 대한 감정(periodizing emotion)으로 규정된다. 그에 의하면, 이 시기에 대한 감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묘사되는데, 먼저 모든 것이 훌륭했던 황금기와 그것과의 단절이 발생하는 혼돈기,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상실과 억압으로 채워진 현재의 묘사이다. 즉, 노스텔지어적 회상은 단절되고 상실한 마을공동체를 현재에서 복원하려는 변화를 위한 의지의 계기로서, 이성이 아닌 감정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 와해된 시골공동체에 대한 복원의 “감정구조”는 이러한 노스텔지어적인 회상에 근거한다(Williams, 201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공동체 주민들이 현재의 마을을 “... 소외되었다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OO구가...”(K), “동네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살지 않잖아요, ... 단절되어 가지고”(F), “무조건 탈출해야 하는 동네”(I)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상적 공간과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 회상이 가진 힘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직관적 기억에 기반을 두고 현재의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스텔지어적인 감정적 실천(nostalgic emotional action)’으로 규정할 수 있다.

### 3) 공동체미디어 소통행위

우리는 마을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노스텔지어적인 감정적 실천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동체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미디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소통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참여방식의 특성은 어떠할까? 과연 공동체미디어의 실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실천 경향성이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와 참여주체 및 방식의 다양성에 따라서 소통행위의 실천도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미디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미디어의 소통행위 실천 동기와 방식에서 서로 상이한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공동체미디어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미디어 소통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도가 사적/공적 경향성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그리고 소통행위의 방식에서 공동체와의 상호주관적 이해에 기반을 둔 소통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 <표 2>와 같이 공동체미디어가 유형화(typology)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sup>4)</sup> 먼저, 소통행위의 동기는 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의 동기가 얼마나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사적-공적 동기로 구분이 될 수 있으며, 소통행위의 방식은 공동체미디어가 조직화하는 데에 다른 공동체, 개인, 단체, 모임 등과 네트워킹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외부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상호주관적 소통관계를 바탕으로 하는지에 따라 주관적-상호주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는 이 연구의 배경이론인 소통강화이론들과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에서 민주적 공동체가 전제하는 소통행위의 동기와 방식과 관련지어 이해할

---

4)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이와 같이 유형화하는 데에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형화는 복잡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이론적·경험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념적 축소과정이 요구되기에 분류기준과 분류결과의 단순화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유형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조직의 체계 및 운영방식의 유연성 및 다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특정 마을미디어의 소통 방식과 동기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며, 특정 마을미디어의 성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소통행위 동기와 방식

구분		소통행위 방식	
		주관적	상호주관적
소통행위 동기	사적	사적-주관적	사적-상호주관적
	공적	공적-주관적	공적-상호주관적

수도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공동체미디어의 소통행위 동기와 목적 및 소통방식이 마을공동체의 공론장의 형성과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러한 유형화와 관련이 있다. 다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소통행위의 동기와 방식 이외에 국가를 포함한 사회 일반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조직과 실천 역시 존재하며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디어 역시 공동체 내 다양한 개인과 집단 간의 특징적 소통관계와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유형화는 공동체 공론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1) 사적-상호주관적 공동체미디어

먼저, 사적-상호주관적 공동체미디어로 분류될 수 있는 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에게 사적 문제와 친밀한 관계는 공동체미디어 소통행위에 참여하는 두드러진 동기가 되었다. 이웃과의 소소한 관계가 상실되거나 단절되는 도시공동체에서 노스텔지어적 ‘정’은 공동체미디어 참여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산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누군가가 노래를 좋아해, 근데 못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그때는 진짜 못 부른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여기 부분은 좀 필을 넣었네?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소소한 성장과 질척거림을 서로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산 증인. 그대의 인생은 그렇다.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F).

한편, 이외에도 자녀양육이 용이하고, 학원,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등

이 갖추어진 마을에 대한 욕망에서 단순한 “자기표현 욕구”(F)에 이르기까지의 사적 동기들이 참여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육아와 교육은 거의 모든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통의 문제들로, 이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육아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비록 개인적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마을과 관련하여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서울시 내 지역별 사회복지 환경이 마을마다 불평등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성은 마을주민들의 심리적 삶의 질을 훼손하여 마을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박탈감”(H) 또는 “콤플렉스”(D, J) “변두리”(B)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의식은 현재의 마을을 부재와 결핍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며 마을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는 사적 동기가 공적 문제인식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동시에 공동체미디어 실천동기의 다차원적 측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좀더 나은 육아와 교육환경에 대한 개인적 욕망의 문제는 공적 문제로 전환되며 마을공동체 활동은 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과 관계를 재구성하는 집단적 실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실천공동체는 마을미디어를 조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많은 마을미디어가 기혼 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향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 애를 낳으니까 내가 사는 사회의 학교, 부모집단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마을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생겼다”(H).

“어느 학교에나 보면 엄마 모임이 있는데 ... 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 관계망 속에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 ...”(A).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은 주로 마을 내 육아,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모임을 통해 맺은 친밀한 개인적 관계나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 또는 미디어에 대한 선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계적·욕구적 참여는 마을미디어를 친밀한 사람들의 사적 미디어로 인식하게 한다. 즉, “(내가 우리 동네에서) 좋아서 하는 강좌에 가볍게 와서 와인 얘기 듣고 커피 얘기 듣고, 그러다가 마을신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교육사업에 오게 되고, 라디오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장”으로(I)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또한, 마을 내 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센터 등의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취약한 마을 내 교육 및 복지 관련 공동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며 마을미디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마을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은 이들이 마을의 다양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처럼, 참여자 개인의 욕망이나 친분, 또는 직업적 특성 같은 사적 계기들이 마을이라는 노스텔지어적 감정의 구조와 결합되어 마을공동체 미디어와 다양한 마을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유형에 속한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네트워킹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주관적 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의 주요 활동가는 다른 참여자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일상의 환경과 내밀한 참여동기 등을 인지하며, 개인의 “스타일”과 “신뢰”가 마을미디어 제작과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음… 너무나 찬란한 순간을 같이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딪치면 특히나 더 날로, 평등한 관계로 부딪칠 때는 그 사람 스타일이 완전히 옳듯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건 되게 감수해야 할, 평등한 구조를 꿈꿀 때에는 다 감수해야 될… 근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게”(F).

“그냥 다 시간 내서 오면. 오늘 같은 경우 열 몇 명 올 텐데. 오면 얘기해서 회의해 가지고 서로 충분히 다 얘기해요. 하고 나서 결정하면, 하자

하지말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민주적이죠. 저희는, 저희의 자량이 민주적인 운영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신뢰고, 그 신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G).

하지만, 이 유형의 공동체미디어의 중심 활동가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상호주관적 소통방식이 개인이 감정과 조직운영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피력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의 예측하기 힘든 일정, 감정, 그리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러한 소통방식은 다양한 사적 동기와 억압된 감정을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다양함과 친밀함을 높이기도 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쓰담쓰담 해주는 방송”(F),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맛”(E)을 느끼고 싶은 감정을 공유하거나 그냥 방송이 “로망”(G)인 사람도 마을미디어를 통해 분절된 개인이 아니라 공간 ‘속’의 주민들 중 하나라는 집단의식을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 (2) 공적-상호주관적 공동체미디어

모든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이 마을을 사적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마을공동체를 시민사회라는 시민공동체(subaltern civic society)로 파악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이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마을공동체 실천동기를 사적, 공적 동기로 뚜렷이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을 내 다양한 공적 문제를 지역 시민사회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조직된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처음은 2007년부터 시작했구요. 마을지역시민단체 공동소식지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시작해서 준비하다가 지역단체 홍보담당자들이 모여서, 협

동조합, 작은도서관, 시민단체, 복지관들에서… 관심 있는 몇몇 분들 수 소문해서 만나서 시작했어요. 마을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홍보담당자도 아니고 단체베이스도 아니고, 관심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죠”(I).

“시민 단체가 다들 어려워하는 과정, 그러니까 참가자도 별로 없고, 시민 단체 네트워크도 활발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고… 시민단체들은 힘이 없고 정당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두 가지 고민에서 시작한 거죠…”(K).

이 사례들은 마을의 시민단체들(예: 민중의 집, 열린사회시민연합 등) 또는 풀뿌리 단체들(예: OO지원센터, OO마을넷 등, 학부모 모임)이 마을 미디어를 시작하는 데 직접 관여됨을 보여 준다. 이러한 단체들은 최근의 마을공동체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역의 낮은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생활상의 참여”(B)를 해왔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부터 마을 내 복지, 환경, 노동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마을 중심의 풀뿌리 시민사회공동체를 조직화했다. 실제로, 마을미디어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평, 성북, 도봉 등)에서 이러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가진 마을 내 자원들, 정치적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는 마을공동체 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하고 조직하는 마을의 사적 주민활동과 모임은 마을 내 시민사회의 토양으로서 더욱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고 이들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 주도의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 운동은 새로운 풀뿌리 시민사회 생태계를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형성하는 과정이며 마을미디어의 목적은 그러한 생태계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소통행위 방식은 앞선 유형의 미디어에 비해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방적이고 참여적

소통을 지향하고 이를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이 공동체미디어의 조직이나 운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거나 프로그램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000 선생님이라고 67살이신가 그러세요. 그분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자기를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 줘서 고맙다고. 우리들이 처음에 할 때, 자기가 참 어색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혀 여기 와서는 서로가 남녀노소 그런 게 거의 없는 편이에요”(G).

그러나 동시에 이 유형의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 공적 조직들과 전문 활동가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전에 정해진 목적과 조직 및 운영방식을 가진 이러한 단체들과의 특별한 관계성은 마을미디어 고유의 친밀한 상호주관적 소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네트워킹 과정에서 해당 단체나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게 되게 답답했는데, 이 오프라인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OO 민중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틀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인사라도 해요. 〈OO 민중의 집〉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분들 중에 관계망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C).

그러나 이러한 경우이라도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단적이라기보다는 내·외부 참여자 간 역할구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혼종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주민과 시민사회 간의 결합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

는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 간의 상호주관성은 미디어 제작과 조직운영 과정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이원화되어 있고, 제도화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3) 공적-주관적 공동체미디어

한편, 공적 목적에 의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마을미디어를 조직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마을공동체 운동과는 별도로 지역미디어 운동의 일환으로서 마을미디어를 독립적으로 조직한 경우도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독점적 중앙언론의 문제와 지역 공론장의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언론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일종의 문화예술 운동이나 문화 운동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고, 또 한 축으로는 지역사회가 다 보니까 다 거대담론만 쫓아가더라구요. 문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풀뿌리가 뭐가 구체적 실체가 있지 않고서는 … 뭐가 있을까 지역사회로 들어가고 싶었죠. 뭐가 있을까 하던 차에 한 선배가 소개를 해주죠, 야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있더라?”(D).

“언론이라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지역전문, 저는 이제 지역신문을, 저희신문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마을언론미디어이라기보다는 지역전문지로 이야기를 해요. 로컬의 관점에서 필터링을 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로컬의 관점에서 필터링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OO를 가장 잘 아는 신문이 돼야 된다. 기자들이 OO 지역의 문화와 복지와 교육을 맡고 있다면 너는 세계에서, <워싱턴포스트>보다, <조선일보>보다, <한겨레신문> 기자보다도 너는 OO지역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에 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는 기자가 되어야 돼”(J).

사회문화 운동 활동가와 전문 언론인의 경력이 있는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을 다른 공동체미디어 참여자와 구별한다—“그들(마을활동

가들)을,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J).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미디어 활동을 “문화 운동” 또는 “마을언론미디어”로 규정하고 미디어의 ‘전문성’과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와 사람들, 그리고 단체나 모임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며 미디어콘텐츠 역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미디어 제작과정에서 만나는 지역 내 유력인사, 단체, 기관, 모임, 또는 집단은 프로그램과 기사와 정보의 주요 생산자나 조력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이러한 공적 역할과 참여의 특성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마을미디어와 달리 지역 내에서 일정 정도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하고, 지역의회와 행정기구의 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형성하게도 한다. 이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고 교육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전략에 따라 운영하기도 한다.

이 미디어들은 최근의 마을공동체 운동의 영향을 받아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전보다 더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정체성을 발견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즉, “OOOOO가 뭔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한 3, 4년 전부터는 내가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꾸준히 나가려고 노력”(J) 하는 모습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미디어 운동이 기존의 마을 또는 지역 공론장과 상호작용하면서 마을 공론장을 더욱 분화·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형의 미디어는 언론이라는 공적 목적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상근자 중심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조직적 운영은 일반 주민들이나 공동체 내 다양한 사적, 공적 모임의 자율적 참여나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소수 운영자와 활동가 중심의 낮은 상호주관성 소통방식을 따르게 된다. 즉,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제한된 상호주

관적 소통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은 앞으로 더욱 제도화된 소통방식과 조직운영이 될 가능성을 높이며 마을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I-1 : “초기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모였어요. 그래도 지지부진하고, 1년 지나고는 한 달에 두어 번,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시로 카카오톡 하고, 다들 다른 일이 있으니까 주로 금요일 밤 9시에 모여서 … 새벽 1시에 끝나고.”

I-2 : “수다로 하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풍성해지긴 하는데 집중력은 좀 떨어져요.”

I-3 : “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초기에. 신문 방향, 논조에 대해 토론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은 누구 하나가 세계 말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그때 바운더리(boundary)가 잡힌 게 아닐까 생각해요.”

I-1 : “편집위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잡힌 거죠. 눈치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 알게 되고, 자주 모이면 지쳐요.”

#### (4) 사적-주관적 공동체미디어

이 유형의 공동체미디어는 이전의 미디어와는 목적과 조직이 전혀 다르다. ‘관변매체’라고 불리는 마을미디어들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 매체들과 관련된 인물을 인터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인터뷰한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과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은 이러한 관변매체들을 영향력이 매우 큰 마을미디어로 지칭했다. 이 관변미디어들은 서울시와 구 등 지역 자치정부나 유관단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제작되어 유포된다. 공공기관의 꾸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은 이들이 다른 마을미디어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탄탄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며 실제로 마을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다.

“그런 (관공서와의) 끈이 있다 보니까 섞여서 자기 독립성 가지려고 하지  
만 여전히 … 자기는 밝히지 않지만 신문을 해봐서 알잖아요, 규모를 알  
기 때문에. 전체 재원의 50% 내외가 구로부터 나와요. 때로는 초창기  
때는 거의 70~80%에 이르렀어요 … (관공서에서) 사주는 구조예요”(D).

“0000관에서 만드는 신문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거 많이 보시더  
라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뭐 홍보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안 봤는데. 이제 우리들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  
라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  
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분들은 아직은 이거보다는 이제 그걸  
보시는 게 확인이 더 … 자기네들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G).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제작하고 운영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변매체는 마을이라는 공간에 존재할 뿐이지 공동체미디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관변매체들은 지역과 마을의 미디어와 관련된  
공적 지원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지원기관들은 이 매체를 “계도지”로  
활용하는 그들만의 상호부조적 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해 이 매체들은  
기존의 지역과 마을 내 주요 여론주도층과 더불어 마을 내에서 매우 강  
력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0000는 계도지 예산을 안 받아, 안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인데, 안 받아. 개네는 받아. 지역에 아까 오피니언 리더층 뭐 500  
명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관에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신문이 청장의 마음에  
구심이, 구심이 거기에 가있는 거라고 알아요”(J).

“마을신문은, 모든 지역신문은, 마을(의)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못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지, 일반 지역신문들이 토호세력  
이 이렇게 동의하면서 안 하는 거지”(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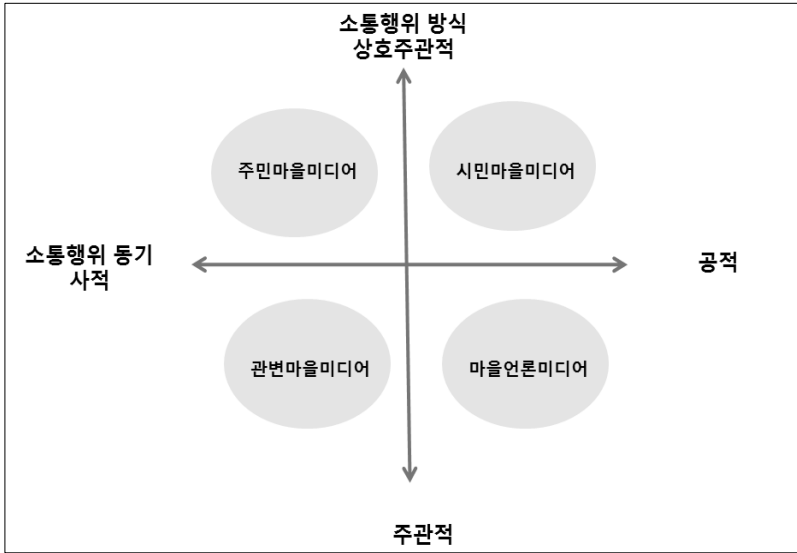


이러한 관공서의 공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마을미디어의 유지와 성장을 억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뷰 대상자들은 마을 내에서 직능단체(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등), 관변단체 및 모임(농협,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봉사대 등), 자치위원회, 토호(지역유지) 등이 전통적으로 큰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 개인과 단체들은 ‘욕구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배타적’이지만 가장 조직적 활동을 한다고 주장한다(F). 특히, 마을 내 이권과 이득을 주는 사업들의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 이들이 조직하는 모임과 단체들에 많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최근의 마을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마을미디어가 조직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의 실질적인 현재 모습은 관과 지역 유력권력들과 매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운영동기, 조직특성,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미디어의 네트워킹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상호주관적 소통방식은 매우 낮거나 고려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미디어와 관련하여 인터뷰 등의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수도 있다.

## 5. 결과 및 토론

이 연구는 소통강화이론과 공동체미디어이론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이 소통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통행위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공론장이 어떻게 변화(또는 반대로 고정, 유지)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공간과 관계의 공유 공동체로 규정되는 마을공동체에서 마을미디어 참가자들은

그림 1.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유형



서로 유사한 노스텔지어적 감성을 공유하며 기존의 마을공간과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미디어로서 마을미디어를 규정한다. 그런데 마을에 대한 감정은 불확실하며 실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모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에 대한 추상적 감정은 마을 내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실천적 동기를 형성하는 실질적 토대가 된다. 즉, 마을에 대한 사적 욕구와 동기들이 마을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반응하며 개인 또는 집단 차원의 실천 커뮤니티가 공동체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마을공동체를 조직화할 때 상이한 동기와 소통 방식으로 다양한 성격의 마을미디어를 조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미디어는 사적-공적 동기와 주관적-상호주관적 소통방식에 따라 실천의 내용과 방식,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동기와 목적 그리고 소통방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림 1>과 같이 공동체미디어의 특징적 유형화가 발견된다.

즉, 사적-상호주관적 미디어는 주민마을미디어로, 공적-상호주관적

미디어는 시민마을미디어로, 그리고 공적-주관적 미디어는 마을언론미디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주관적 미디어는 관변마을미디어로 각각의 특징적 공동체미디어가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상이한 동기와 소통 방식의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 내에서 지향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도 차이를 보이며 공동체 내 네트워킹 대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주민마을미디어는 마을주민의 잃어버린 꿈이나 희망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에서부터 공동의 육아나 교육과 같은 교육 및 복지 환경의 개선과 같은 생활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동기에서 조직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높은 수준의 상호주관적 소통관계를 토대로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다. 시민마을미디어는 마을 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풀뿌리공동체가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주민의 사적 욕망뿐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공공이슈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미디어 실천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닌다. 시민마을미디어 역시 주민마을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며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만, 실천의 방식과 내용 및 네트워크 특성은 오히려 시민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마을미디어는 사적-공적, 그리고 주관성-상호주관성의 정도가 혼종적인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에 비해, 마을언론미디어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디어 공론장 형성이라는 공공적 목적에 비중을 둔다. 마을언론미디어 참가자들은 주민들의 참여와 상호주관적 소통보다 선형적으로 가진 고유의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한다는 점에서 주민마을미디어나 시민마을미디어에 비해 다소 낮은 상호주관적 소통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마을언론미디어는 전문적 저널리즘 실천과 영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적 성격의 주민마을미디어나 시민사회 운동으로서의 시민마을미디어의 다양한 이슈들을 공론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언론미디어는 마을에 기초한 시민저널리즘 활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변마을미디어는 이 연구에서 규정하는 마을미디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이 실제로

다른 마을미디어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이유로 분석과 유형화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변마을미디어는 마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이 맺은 마을 내 기득권층과의 관계 등은 다른 유형의 마을미디어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마을미디어 유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관변마을미디어는 다른 유형의 마을미디어와 달리 마을주민의 참여와 이들의 욕구에 대한 고려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폐쇄적이며 매체 자체의 이해와 목적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공동체미디어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공론장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도시공동체 공론장은 주류미디어와 국가, 그리고 시장에 의해 소외되거나 배제된 진공상태의 공론장(void public spheres)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또 하나의 도시공동체에 대한 신화라는 사실이었다. 도시공동체의 공론장은 일반 사회의 권력관계를 투영하는 동시에 마을 차원 고유의 권력관계를 내재한 독특한 위계적 공론장 구조를 갖고 있었다. 마을 ‘토호’, ‘지역정치인’, ‘지방자치 기구 및 단체’, ‘관변단체’ 등 권위주의 시기부터 이어진 마을 내 기득 권력과 관변마을미디어는 마을의 공론장을 오랫동안 독점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증가한 마을 내 시민사회 및 정치적 풀뿌리 조직들과 최근의 마을주민 참여에 의한 공동체 모임들은 이러한 마을 공론장의 독점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언론 중심의 조직적 공론장 역시 주민 참여적 공론장의 형성으로 새로이 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마을공동체와 미디어 활동은 나름의 역동성이 있는 공론장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을활동가들은 공동체의 다양한 주체를 재발견하고 각자의 이념이나 관심 및 동기에 따라 연결망을 구성하면서 중첩적이지만 상이한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를 주도하고 있다. 즉, 최근의 마을미디어의 사례들이 보여 주

는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공론장의 현상들은 마을을 지배 하던 위로부터의 주류 공론장과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공론장들의 그 간의 역동성을 재발견하게 하며, 여기에 새로이 사적 유형의 공론장이 형성되는 변화과정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공론장의 재발견과 분화의 과정은 은폐된 (혹은 내재된) 기존의 공동체 공론장 내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분화 및 재구성하려는 집단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즉, 도시공동체 내 공론장의 분화과정은 새로운 ‘알 수 있는 공동체’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며 마을 단위에서의 권력갈등과 긴장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 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 도시공동체 사업의 기본적 아이디어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소통강화이론과 커뮤니티미디어이론과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논의지점을 제공한다. 먼저, 소통강화이론과 공동체 공론장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 실천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이념성에 근거함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이념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체계(system world)적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Fraser, 2004; Parekh, 2000; Walzer, 1983). 예를 들면,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 공론장은 더 많은 시간과 자본(물질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가진 주체들에 의해 “리더”나 “핵심” 인사와 네트워크의 특성 및 소통방식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공동체 활동에 동원되거나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만 하는 주체들에게 소통과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체계적 구조이며, 이 체계는 현실의 모든 공동체 내에 견고하게 위치하고 자신들만의 ‘이상적’ 공동체를 위한 소통행위와 관계를 재생산한다. 특히 생활, 노동, 그리고 법적 조건에 의해 마을공동체 참여에 원천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는 마을공동체 운동이 또 다른 소외 공동체를 생산할 가능성마저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존 권력의 작동원리와 체계의 존재는 공동체적 소통행위의 현실이며 이는 공동체 내 촘촘한 소통의 섬유구조를 — 특정 이익, 이념, 정파, 인맥의 공동체처럼 — 영

기계 하거나 또는 유사한 성질의 섬유들끼리 구조를 만들게 하거나 또는 아예 아무런 섬유구조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소통강화이론과 공동체미디어의 이상적 소통행위와 공동체 이념이 그것의 윤리적 정당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참여주체들의 참여조건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주체와 주체들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력 관계와 구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통강화이론이나 공동체미디어와 같은 구성적 소통이론(constitutive communication theory)들이 갖는 실용주의적 경향의 딜레마 문제와의 관련성 때문이다(Craig, 1999, 2007). 예를 들면, 참여와 상호주관적 소통에 의해 조직되는 공동체미디어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소통행위를 위하여 체계적 지원과 제도 및 운영과 같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수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제도화는 규율과 통제에 의한 선별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결국 참여와 상호주관적 소통행위 자체를 제한하게 한다. 실제로 연구대상 공동체미디어 참여자들은 효율적 미디어 운영을 위한 보다 중앙집권적이며 전문적인 조직 및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와 이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결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으나 소통이론과 실천이 근거하는 윤리들이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정리와 이론적 함의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미디어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에 근거한다. 사례연구가 그러하듯이 일반화의 문제는 늘 존재한다. 이 연구 역시 10개 공동체미디어의 16명의 참여자와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공동체미디어는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의 높은 관심과 사업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제한적인 수치이다. 따라서 향후 이 연구가 좀더 일반적인 논의 차원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비교연구와 이 연구에서 발견되고 제안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하는 추가연구 등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은규·최성은 (2013). 정규방송 도입 이후 공동체 라디오 운영구조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184-214.
-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3). 서울 마을미디어 여행. 서울: 미디어엑트.
- \_\_\_\_\_ (2015). 마을미디어 가이드북 '떠나자! 서울마을미디어여행'. 서울: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안진·채영길 (2015). 공동체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방송학보>, 29권 6호, 94-136.
-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마을과 행정 사이를 오가며 쟁가가 들려주는 마을살이의 모든 것. 서울: 휴머니스트.
- 조명래 (2013). '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 서울시 신주거정책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46권, 5-57.
- 채영길 (2015). <커뮤니티미디어 이론과 실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Atton, C. (2002). News cultures and new social movements: Radical journalism and the mainstream media. *Journalism Studies*, 3(4), 491-505.
- Berrigan, F. J. (1979). Community communications: The role of community media in development. Reports and Papers on Mass Communication No. 90. UNIPUB, 345 Park Ave. South, New York, NY 10010.
- Broad, G. M., Ball-Rokeach, S. J., Ognyanova, K., Stokes, B., Picasso, T., & Villanueva, G. (2013). Understanding communication ecologies to bridge communication research and community action.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41(4), 325-345.
- Craig, R. T. (1999). Communication theory as a field. *Communication Theory*, 9(2), 119-161.
- \_\_\_\_\_ (2007). Pragmatism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theory. *Communication Theory*, 17(2), 125-145.
- Downing, J. D. (2000). *Radical media: Rebellious communication and social movements*. Sage.

- Foxwell, K., Forde, S., Meadows, M., & Ewart, J. (2005). Media matters: Ways to link community radio and community newspapers. *Australian Journalism Review*, 27(2), 87.
- Fraser, N. (2004). Recognition or redistribution?. In Collin Farrelly (ed.).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Thousand Oaks: Sage.
- Friedland, L. A., & McLeod, J. M. (1999). Community integration and mass media: A reconsideration: Mass media, social control, and social change. *A macrosocial perspective*, 197-226.
- Friedland, L. A. (2001). Communic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toward a theory of the communicatively integrated community. *Communication Research*, 28(4), 358-391.
- Garrett, M., Hogan, N., Larkin, A., Saunders, J., Jakeman, P., & Coote, S. (2013). Exercise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multiple sclerosis — a follow-up of people with minimal gait impairment. *Multiple Sclerosis Journal*, 19(6), 790-798.
- Howley, K. (2005). *Community media: People, pla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Y. C. & Ball-Rokeach (2006). Civic engagement from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spective. *Communication Theory*, 16(2), 173-197.
- Lewis, P. M. (1984). *Media for people in cities: A study of community media in the urban context*. Paris: UNESCO.
- Lindlof, T. R. (2001). The challenge of writing the qualitative study. *How to publish your communication research: An insider's guide*, 77-96.
- Minkler, M. (2005). *Community Organizing and Community Building for Health*. Rutgers University Press.
- Parekh, B.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Basingstoke: Palgrave.
- Polanyi, K. (2009).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origin of our time*. 홍기빈 (역) (1999). <거대한 전환: 우리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서울: 출판사 길.
- Rodríguez, C. (2011). *Citizens' media against armed conflict: Disrupting violence in Colombia*. U of Minnesota Press.



- Rogers, E. (1997). *A history of communication study: Biographical approach*. NY: The Free Press.
- Tannock, S. (1995). Nostalgia critique. *Cultural Studies*, 9(3), 453-164.
- Thompson, J. B. (1995).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NY: Basic Books.
- Wilkin, H. A. (2013). Exploring the potential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ory for informing efforts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Journal of Communication*, 63(1), 181-200.
- Wilkin, H. A., Moran M. B., Ball-Rokeach S. J., Gonzalez C., & Kim, Y. C. (2010). Applications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ory. *Health Communication*, 25(6-7), 611-612.
- Williams, R. (2001). *The long revolution*. 성은애 (역) (2007). <기나긴 혁명>. 서울: 문학동네.
- \_\_\_\_\_(2013). *The country and the city*. 이현석 (역) (2013). <시골과 도시>. 서울: 나남.

투고일자	2016년 04월 13일
심사일자	2016년 05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06월 08일

## Abstract

# Mauel Community Me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ty Public Sphere in Seoul

**Young-Gil Chae**

Associat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ng-Chan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Young Min Baek**

Assistan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Yeran Kim**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Eujong Kim**

Research Fellow,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Based upon communicative action theor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otivations, various ways of communicative actions, and the processes to construct communities. More specifically, we tried to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ing what are the relations between how community members define their community and their ways of communicative actions, what are their motivations and purposes for the actions,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ir communities. In particular, we tried to answer to these questions from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of interviews and documents gathered throughout the various urban community media sites in Seoul. We found that the communicative actions to reconstruct their communities are centered around emotional nostalgic feelings and ideas that motivate their actions. However, the purposes as well as the ways

of communicative actions are varied between the communities to the extent that the forms of community media are distinctively formed around different networks of communities of action. The findings enabled us to categorize those community media in accordance with the motivation and ways of communicative actions of participants in the community media. The diversity of the media signifies the unique structure of community based public spheres and culture.

**Keywords : Community media, Maeul, Urban community,  
Community public sphere**